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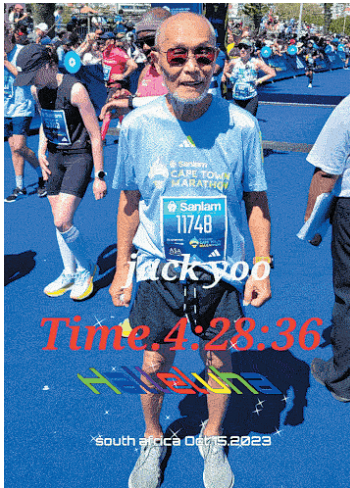
12
2023

재외동포의

창



특집 _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영국·미국서 동포 간담회
 기획 _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성황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열려
 화제 _ 재외동포기본법 11월 10일부터 시행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 전달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동포 간담회 격려사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됐습니다. 첫 일정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저희가 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매우 오래되고 깊습니다. 박연으로 알려진 벨테브레이와 하멜이 인도네시아 동인도회사에서 일본 나가사키 항으로 가는 도중 표류를 하다가 우리 제주도에 들어와 한 분은 거기서 평생을 사시고, 또 한 분은 중간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셨습니다. 벨테브레이는 당시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멜은 유럽 사회에 한국을 알렸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네덜란드는 5천명이 넘는 장병을 선뜻 파병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우리나라에 군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고, 작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16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네덜란드의 많은 도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는 한식을 즐기는 네덜란드 사람들로 붐비고, K팝과 K드라마 같은 K콘텐츠의 인기도 매우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많은 다자회의에서 만났고, 또 세 차례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12월 13일 정상회담을 하면 네 번째 정상회담이 됩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처음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다자회의에 갔을 때도 뤼터 총리가 많은 유럽 정상을 한분 한분 제게 소개해줬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그런지 그 이후에 많은 다자회의에서도 뤼터 총리가 왔나 제가 먼저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네덜란드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뤄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물론 한국과 네덜란드는



격려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방 안보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시작해 경제·문화 교류, 첨단 과학기술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양국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네덜란드 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이래 신학과 공학 분야의 유학생들로 시작된 네덜란드 동포사회가 지금은 1만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덜란드의 한인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네덜란드 동포들이 지금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재외동포청이 올해 6월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 되고 동포를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한인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 나가면서 뿌리를 잊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해외 순방 때마다 방문지의 우리 동포들을 만나면서 무한한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를 가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을 했는데 만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세계 각국에 재외동포 사회를 가진 나라는 이탈리아와 한국뿐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고도 있지 않나 싶은데 한국의 재외동포 사회나 이탈리아의 재외동포 사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가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덜란드 동포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창**



- 02 권두언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동포 간담회 격려사
- 04 특집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영국·미국서 동포 간담회
- 06 기획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성황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열려
- 08 화제 재외동포기본법 11월 10일부터 시행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 전달
- 10 한민족 공감 90살 재미 동포 마라토너, 내년엔 남극 달린다
미국 동전 뒷면에 한국계 여성 얼굴 최초로 새긴다
- 12 글로벌 코리아 재미 동포 최초 나스닥 상장 사업가 부부, 숙대에 100억원 기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공무원 박지은 씨 "다수-소수 가교될 것"
최예림 미국 상원의원 보좌관 "한인 보좌진 모임 출범할 것"
- 14 유공 동포 고려인 김베라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봉사활동은 내 삶의 일부"
- 15 주목! 차세대 해외 약탈 한국 문화재 찾는 폴란드 한인 2세 남지은 씨
- 16 지구촌 통신원 내년은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 18 동포소식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100년 만에 새 단장... 재외동포청, 50만 달러 전달
- 20 문화유산 백제의 발자취... 공주 무령왕릉·마곡사·공산성
세 곳 모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 22 OKA 뉴스 '2023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개최 외
- 24 동포 캘린더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글로벌 코리아인과 공공외교' 세미나 개최 외
- 25 기고문 외국 교과서에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대표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4년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영국·미국서 동포 간담회

11~12월 현지 방문해 동포 격려… “모국-거주국 든든한 가교 돼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1~12월 두 달에 걸쳐 네덜란드, 영국, 미국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설명하고 동포사회가 모국과 거주국 간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12월 11일(현지시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동포만찬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경제·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매우 오래되고 깊다”며 “과거 제주도로 표류해 들어온 네덜란드 선원 벨테브레이(한국명 박연)는 조선의 훈련도감에서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고, 하멜로 인해 유럽 사회에 한국이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경제 협력을 확대해 작년 양국 교역은 역대 최대인 160억 달러에 이르렀고, K-팝과 K-드라마 같은 K-콘텐츠의 인기도 매우 뜨겁다”고 말했다.

이윽고 네덜란드의 동포 사회가 1만명 가까운 규모



네덜란드 동포 초청 만찬

2023년 12월 11일

1

로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가 동포들뿐 아니라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윤원 네덜란드 한인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호 안보1차장,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부부 등이 참석했다.

“영국 국민 방문 통해 사이버안보·방산 협력 구축”

앞서 11월 20일(현지시간)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라며 “한영 자유무역협



2



3

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 공급망과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영은 오랜 세월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영국과 1883년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방 후 영국은 공산 세력의 침공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도 앞장섰다”며 “1950년 북한의 불법적 기습 남침으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명의 군대를 파병했고, 이 중 1천여명이 목숨을 바쳤다”고 상기했다.

동포 사회를 향해서는 “1950년 47명 규모에 불과했던 한인 사회가 1970년대부터 한국 상사들의 영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약 4만명 규모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한인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재영 동포들이 무역·법률·의료·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현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해 영국 사회에 더 큰 기여와 봉사를 하고, 한영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돼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 본토 한인 역사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1월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 한인들은 다시 이곳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미국 본토에 정착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여러분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북캘리포니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4번째 방미임을 상기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동포의 발전 역사”라며 “샌



4

프란시스코 동포 여러분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정보기술)와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동포들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직역별, 분야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며 특히 미래 세대들을 잘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동포 약 150명이 참석했다. **[참]**

1.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 동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축하 공연단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4.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20일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성황

재외동포청 주최... 14개국 112명 모국 방문

재외동포청이 입양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과 동포 간 연대를 위해 마련한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2월 11~14일 나흘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연결,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는 14개국에서 거주하는 70명의 입양 동포를 포함해 가족 등 11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입양 후 처음으로 모국 땅을 밟았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1일 강북원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장인 대독한 개회사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입양 동포를 포용적 재외동포 정책의 하나로 보듬고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라며 “입양 동포의 권익 보호와 상호 발전이 가능토록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인 임종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여러분 곁에 언제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를 배우면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지속해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탈리아한인입양인협회(KORIA)의 카를로 콜롬보(한국명 박흥국) 회장은 참가자 대표 축사에서 “완전하게 친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한국과 나,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모국과의 연결에 대한 생각’ 등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미국과 독일, 덴마크,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입양 동포 4명이 패널로 참가해 각자의 생각을 풀어냈다.

입양동포들은 대회 2일 차인 12일에는 재외동포청이 유관기관



12월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입양한인동포들

과 연계해 입양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 세션’에 참가했다. 이 세션에서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적회복 방법과 재외동포비자(F-4) 취득 절차 등을 안내했다.

입양인 지원 단체 해외입양인연대(GOAL)는 친생 가족 찾기 정보에 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 가족 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절차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에 국립중앙박물관, 국기원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산업시찰을 통해 모국의 발전상을 돌아봤다. 국가별, 지역별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국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종합토론을 거쳐 입양 동포와 한국의 상호발전을 기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폐회식을 끝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환송사에서 “이번 대회가 입양동포와 모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재외동포청은 향후 입양동포와 함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열려

재외동포청 주최… “한인 정체성 · 리더십 강화”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 어갈 우수한 젊은 인재를 초청해 한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리더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돕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닷새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열렸다.

‘세계를 우리 품에, 미래를 우리 손에’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에는 20개국에서 89명의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치, 경제, 법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에 자문을 하기도 한 황순식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항공 우주 엔지니어, 미국 입양 한인으로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어맨다 조 조지아한인입양인협회장,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음대 교수이자 파라과이한인회 어린이합창단장인 소프라노 이슬기 등이 방한했다.

동포청장 “정체성 함양·거주국 내 지위 향상 위해 노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1월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혜적인 관계였지만,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호혜적인 관계가 됐다”며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이 일원화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동포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고려인 동포 등 소외된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 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이 청장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정책 변화’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11월 29일에는 서울 삼성동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분야별·지역별 토론에도 참여했다. 대회 3일 차인 11월 30일에는 경기 수원외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과 경기 용인의 한국민속촌 등을 찾아 산업 시찰 및 전통문화 체험했다.

재외동포청은 12월 1일에는 차세대들이 모국과 실질적인 교류를 하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분야별 토론과 지역별 네트워킹, 종합토론 등에 참여한 뒤 폐회식을 끝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동포가 한인 리더로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천50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대회에 참가했다. **▶**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폐회식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는 참가자들

재외동포기본법 11월 10일부터 시행

재외동포 정의 · 정책 기본방향 · 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 장면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세계 각지에 750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담아 이들 모두 달성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췄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

해 750만 재외동포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무 부처로서 이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이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도 재외동포정책에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이행을 위해 지난 9월 13일 기관 출범 100일을 맞아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 세부 사업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재외동포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관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회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2024~2028년)을 수립한 뒤 내년 1월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 전달

이기철 청장 “동포들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보듬겠다”

재외동포청은 연말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2월 21일 8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항마을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건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주훈춘 안산 고항마을 영주귀국자노인회장과 이 마을 거주 사할린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전달식에서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와 그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포들이 어디 있든지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위문품 전달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땅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을 계기로 고국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사할린 현지서는 동포 영주귀국·정착지원 대면 설명회

앞서 재외동포청은 11월 3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한인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영주귀국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270명이다. 이들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에서 8번째)이 12월 21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항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 뒤 관계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11월 3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설명회 모습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등이다.

대상자들은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열리다 올해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개된 대면 설명회에는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법무부·보건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90살 재미 동포 마라토너, 내년엔 남극 달린다

파독 광부 출신 유재준 씨, 미국서 정착해 세탁소 등 운영

10년 전에 마라톤에 입문해 그간 세계 6대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한 미국 거주 90세 한인이 내년 초 남극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도전장을 던져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 동포 언론인 송광호 씨에 따르면,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잭 유(한국명 유재준·90) 씨다. 유씨는 건강을 위해 80살이 된 2013년에 마라톤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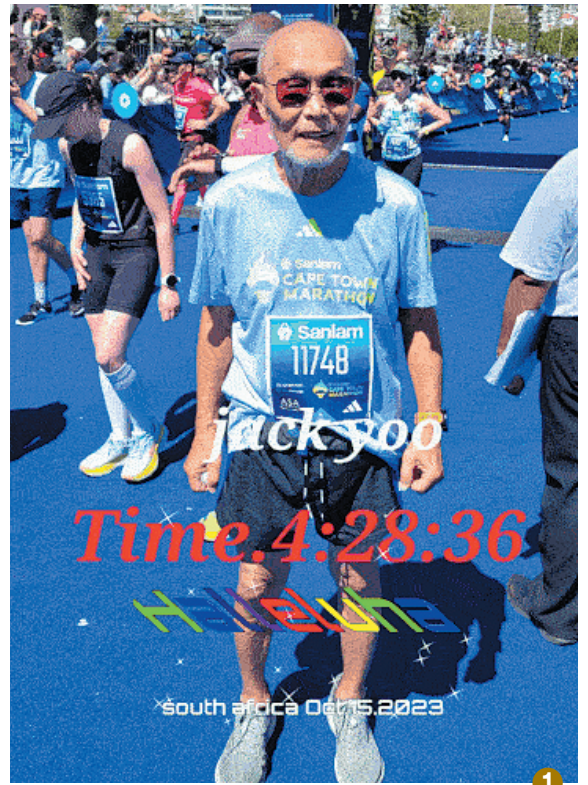
그해 시카고 마라톤에서 3시간 30분 38초의 기록으로 처음 완주한 데 이어 도쿄(2014년), 베를린(2014년), 보스턴(2015년), 뉴욕(2016년), 런던(2017년) 마라톤 등에서 모두 3시간30분 전후 기록으로 완주했다.

유 씨는 “처음에는 거주지인 시카고 마라톤에 참여해 2017년 런던 마라톤까지 6대 메이저 대회를 완주했다”며 “지난 10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마라톤에 참여해 4시간 28분 36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유 씨는 1964년 독일에 광부로 파견됐다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이민했다. 미국에서는 주로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았다. 70살에 은퇴한 뒤 중국에서 12년간 선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유 씨는 “내년 3월 21일에 남극에서 열리는 세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탁구와 걷기 등 매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 여행사가 운영하는 남극 마라톤 대회는 1995년부터 열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 킹조지섬에서의 대회를 거쳐 돌아오는 13박 14일 일정이다. 



- 1. 올해 10월 남아공 케이프타운 마라톤에서 완주한 유재준 씨
- 2. 유재준 씨가 그간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 받은 메달들

미국 동전 뒷면에 한국계 여성 얼굴 최초로 새긴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

미국 조폐국(USM)이 발행하는 25센트(쿼터) 동전 뒷면에 한국계 인물의 얼굴이 처음으로 새겨질 전망이다. 미주중앙일보와 USM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주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urn)이다.

1987년생인 밀번 씨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근육 퇴행성 질환인 선천성 근이영양증을 앓았고, 이러한 자기 경험이 이후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밀번 씨는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 교육 과정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노스캐롤라이나 법안 작성과 통과에 역할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그를 장애인협회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도 창업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의 직속 기관 지적장애인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자문 위원으로 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키트를 만들고 위생용품을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암 투병 중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한 그는 생일인 2020년 5월 19일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 조폐국,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 주인공 5명 선정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USM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담긴 주화 뒷면에 얼굴을 새길 여성 후보자 20명을 검토한 뒤 지난 10월 17일 5명을 최종 발표했다.

USM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미국 여성계에서 업적



1. 미국 조폐국이 검토 중인 스테이시 박 밀번의 주화 디자인(미국 조폐국 홈페이지 캡처)
2. 한국계 미국인 장애인 인권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가운데, 구글 아트 앤 컬처 홈페이지 캡처)

과 공헌도가 큰 인물을 기리기 위해 25센트 주화 뒷면에 얼굴을 새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프로젝트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19조 발효 100주년을 기념해 2020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른 것이다.

프로그램 책임자인 벤트리스 김슨 국장은 “주화 제작을 통해 여성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미국 역사에 공헌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이끈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밀번 씨 이외에도 흑인 언론인 아이다 웰스, 걸스카우트 창립자 줄리엣 고든, 천문학자 베라 루빈, 흑인 테니스 선수 앨시어 김슨 등이 포함됐다. USM은 검토 과정을 거쳐 이들의 얼굴이 들어간 주화의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



재미 동포 최초 나스닥 상장 사업가 부부, 숙대에 100억원 기부 “117년 역사 민족 여성 사학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길”

숙명여자대학교는 한인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기업을 상장한 황규빈 텔레비디오 창업자와 이 대학 동문인 아내 황점마 씨가 숙명 발전기금으로 800만달러(한화 103억여원)를 약정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지난 2월 200만 달러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600만 달러를 추가 약정한 것으로, 개인 기부 약정 기준으로 이 대학 최대 금액이라고 숙대는 설명했다.

황 씨 부부는 “이번 지원 기금이 초석이 되어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 여성 사학인 숙대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숙대는 이 기금을 멀티플렉스와 기숙사 조성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내 황 씨는 1959년 숙대 생활과학대학의 전신인 가정대학 가정학과를 졸업한 뒤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다.

남편은 1975년 세계 최초로 PC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한 벤처기업 텔레비디오의 창업자이다. 그는 사업 시작 8년 만에 재미 동포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회사를 상장시켰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공무원 박지은 씨 “다수-소수 가교될 것”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매력적인 일이에요. 캐나다 주류 사회와 이민자들 사이에서 소통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와 소수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캐나다 연방 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정착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 어드바이저로 일하는 한인 박지은(32) 씨는 12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언론과 만나 “큰 조직의 일원이지만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젊은 인재를 초청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리더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돕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캐나다는 인구의 40%가 이민자 또는 이민자 자녀로 이뤄진 다문화 국가로, 이민자를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본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과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다.

직원 1만명 규모의 IRCC는 지난해 말에는 ‘2023~2025년 이민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년간 약 145만명의 이민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씨가 3년째 일하는 정착 부서는 이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점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민자와 난민이 캐나다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500여개의 정



착 서비스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박 씨의 부서에는 100여명이 근무하는 데 이중 한인은 그가 유일하다. 박 씨는 영주권자들이 정착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단체들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 업무가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동료들과 개선 방안을 만들었고,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중학생이던 15살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 앨버타주의 캘거리로 이민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아버지가 중국 주재원이던 시절 박 씨도 2년간 함께 생활한 적도 있어 이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그는 캘거리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부전공했다. 오타와 국회 인턴을 거쳐 캐나다 첫 한인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3년간 산업부에서 일한 뒤 이민난민시민부로 자리를 옮겼다.

최예림 미국 상원의원 보좌관 “한인 보좌진 모임 출범할 것” 범죄학 학·석사 전공... 9년째 미 육군 연방예비군으로도 활동


“정계에 도전하는 젊은 한인들이 늘고 있지만 도움을 주고받을 연결고리가 부족해요. 지인 등 20여명으로 차세대 한인 보좌진 모임을 시작해 미국을 넘어 세계 한인들의 대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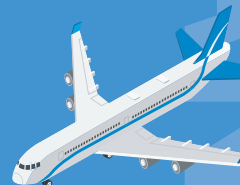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차 방한한 최예림(28) 보좌관(알렉스 파디아 미국 연방 상원의원실 소속)은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언론과 만나 “한인 정치인이 많이 배출돼 대표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보좌관은 태미 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부시장실의 김민선(29) 수석보좌관과 의기투합해 연내에 젊은 한인 보좌관들의 네트워크 등을 목표로 한 비영리단체(NPO)를 출범할 계획이다.

미국 등 각국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한인들은 꽤 있지만, 대표할 만한 단체는 마땅히 없는 상태다. 과거 전현직 미국 한인 보좌진들이 만든 ‘한인보좌관협회’도 있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 최 보좌관은 “한인 보좌진들이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며 “정계에 관심이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래 한인 여성인 최 보좌관과 김 보좌관은 미국 육군 연방예비군으로 복무하면서 알게 됐다. 최 보좌관은 2015년부터, 김 보좌관은 2014년부터 각각 미군으로 활동하며 각종 정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6살이던 2001년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간 그는 캘리포니아 어바인대(UC어바인)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뒤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학 시절 카멀라 해리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강연을 듣고 감명받아 정치로 진로를 선택했다. 해리스 의원실 인턴으로 시작해 보좌관을 지내는 등 해리스 의원이 부통령으로 가기 전까지 3년간 이 의원실에서 일했다. 



고려인 김베라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봉사활동은 내 삶의 일부”

국가자원봉사자연합회 설립해 자원봉사단체 통합·네트워킹 역할

“**봉**사활동은 제 삶의 일부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봉사활동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차 방한한 고려인 김베라(41) 카자흐스탄 하원의원은 11월 16일 언론과 만나 “대학 때 시간이 많아서 시작한 봉사활동이 많은 것을 가져다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 졸업 후 10년간 봉사단체에서 일한 그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자원봉사 운동을 발전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해 2012년 자원봉사 단체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국가자원봉사자연합회(NVN)를 설립해 회장을 맡고 있다.

서카자흐스탄주 비영리단체 발전 프로젝트 단장을 지냈고, 세계은행과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가 공동으로 청년을 돕는 ‘즈하스 프로젝트’ 단장을 지내며 취약 계층 청소년, 저소득 층, 장애인, 농촌거주자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2020년을 ‘자원봉사자의 해’로 부르자고 제안해 승인을 얻어냈고, 대학 입학이나 공무원 취업 시 봉사활동 가산점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20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하다가 30대 후반이던 2021년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현장 경험을 토대로 법 개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초심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가 자원봉사에 처음 눈을 돌리게 된 건 대학 시절 보육원 봉사활동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인솔자로서 문화 체험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저도 어른이 되면 자녀와 극장에 오고 싶다”고 말하자 그때 문득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알마티 경제통계 아카데미에서 회계·감사를 전공한 김 의원의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김베라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이다. 대학 공부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와 단체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지도도 연결됐다.

카자흐스탄 의회 첫 한인 여성 의원인 그는 2021년 집권 여당인 아مانة당 비례대표로 7대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개헌 추진 등 카자흐스탄 내 정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올해 초 하원이 해산돼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올해 3월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다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지난 9월부터 8대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유공 동포 회원이기도 한 그는 고려인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의 외조부모는 옛 소련 당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당한 아픔을 겪은 고려인이다.

김 의원은 “12월부터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측과 매달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고려인들이 겪는 어려움, 해결이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외 약탈 한국 문화재 찾는 폴란드 한인 2세 남지은 씨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문화재 반환은 화해·협력·정의 구현”

“**문** 화재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기에 약탈 문화재는 원래 소유국으로 돌려주는 게 순리입니다.”

남지은(29)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당사국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종석 폴란드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자녀로 한인 2세대. 지역만리 타국에서 성장한 남 씨는 뿌리 의식과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부친 덕분에 모국의 언어와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며 성장했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한국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옛 재외동포재단의 모국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대학원에서 국제협력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20년부터 아버지가 속한 문화유산회복재단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해외에 소재한 우암 송시열 목판, 이학종요 목판, 문신 경희 묘지석 등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참여했다.

남 연구원은 지난해 문화재를 침탈한 국가와 빼앗겼던 국가 사이에 아픈 과거를 잊고 평등적 미래 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 반환 상징적 외교’를 영문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또 올해 5월에는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유럽 3개국 소재 한국 문화유산 조사’에 앞장섰다.

그는 해외에 살면서 한인 정체성을 잃지 않은 비결과 관련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해외에 살아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면서 “젓가락질도 가르쳐 주시고 김치도 먹게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차이에 대해서는 “한국은 아직 문화재 보존 및 발전을 산업의 한 분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문화재를 소중한 유산 그 자체로 받아들이 보존에 힘쓰는 폴란드와 달리 한국은 관광이나 비즈니스에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활용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해외 약탈 문화재 반환의 의미와 관련해 남 연구원은 “문화재 반환의 의미를 네 단어로 정리하면 ‘화해·협력·분쟁·정의’다. 어느 두 국가가 반환 협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또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음으로써 정의가 구현되기도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접점인 문화재 반환은 인류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K-팝 등 다양한 K-콘텐츠를 갖춘 소프트 파워 덕분에 문화적으로도 강국이다. 이를 이용해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문화재 반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다른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약탈당해 설움을 겪은 역사도 있기에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년은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 준비… 내년 8~9월 한·러 양국서 개최

러시아 극동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활동하는 김현동(61) 동북아평화기금 공동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내년에 전 세계 한인 동포와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등을 연해주에 모시기 위해 준비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 말대로 현재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과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한인회 등은 2024년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추진위원회 구성과 행사 프로그램 마련, 예산 확보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 평화연대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단체들이 보조를 맞춰 함께 뛰고 있다.

이들 단체는 내년 8월 한국 내 10여개 도시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무용단 공연과 사진전 등을 열어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등 2곳에서 우리 전통문화 및 K팝 공연과 고려인 이주 사진전, 세미나 등을 여는 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려인 수천 명과 세계 각지 한인 400여명 행사 참여

단체들은 내년 본 행사에 러시아·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수천 명과 중국, 일본 등 해외 각지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400여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또 이 같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국내외 각계 인사를 망라한 16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모두 160명으로 구성할 추진위원회에 현재까지 이름을 올린 인원은 70명이다.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 등은 기념사업에 드는 예산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에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



도 요청했다. 나머지 사업비 10억원은 지자체와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한 모금으로 마련할 생각이다.

앞서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이던 2004년에는 한국 정부에 산과 국민 모금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우수리스크에 기념관(고려인문화센터)을 짓는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이곳은 고려인 후손들에 우리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동포들이 서로 화합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러시아 공식기록 “한인 1864년 9월 21일 연해주 첫 정착”

조선인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해 연해주에 처음으로 정착한 시기는 1863년경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인 13가구 60명이 연해주 지신허(地新墟) 마을에 정착했다’는 러시아 측 공식기록은 이듬해인 1864년 9월 21일로 나타난다.



러시아인들은 자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을 '코리안'이라는 뜻의 '카레이츠 한인' 혹은 '카레이스키'라고 불렀다. 하지만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인'으로 칭했다. 이후 연해주에서는 고려인 수가 계속 증가해 블라디보스토크 등 지역에는 한때 30개가 넘는 한인촌이 형성됐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1910~1945년) 당시 이곳으로 건너온 우국지사들과 함께 일본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펼쳤고, 1937년에는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하는 수난도 겪었다. 이런 까닭에 연해주 곳곳에는 최재형 기념관을 비롯해 이동휘·무명 독립운동가 기념비, 신한촌 기념탑 등 항일정신을 기리는 사적지와 기념물 등이 산재해있다.

고려인 후손들, 우리 문화·역사 지키려 노력 “한인 동포 간 연대 계속돼야”

현지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키려는 고려인 후손들의 노력도 볼 수 있다.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의 김 발레리아(62) 교장도 이 가운데 한명이다. 김 교장은 고려인 3세다. 고려인 후손에 한글 등을 가르치기 위해 최재형기념사업회 등 지원을 받아 2019년 9월 우수리스크에 마련한 이곳은 현재 재정 위기로 폐교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이어지며 국내 기관·단체 예산 지원과 한국인 방문객 후원금 등이 대부분 끊겨 학교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 등이 부족한 탓이다. 현재 학교 내 유치원은 문을 닫았고, 교육 공간 등도 대폭 줄었다.

김 발레리아 교장은 “한국 일부 단체나 익명의 기부자 등이 성금을 보내줘 일단 내년 봄까지는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 이 지나이다(65) 씨는 대표 항일 기념물인 신한촌 기념탑을 2019년부터 관리하고 있다.

1999년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가 후원금 3억여 원을 들여 마련한 기념탑 관리는 애초 고려인 3세인 이 베체슬라브 씨가 맡았지만, 질병으로 별세한 뒤로는 부인 이 씨가 대신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신한촌 기념탑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이 업무를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직접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모두 45만명, 한국에 있는 고려인은 10만명으로 각각 추산된다. 김현동 공동대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한인 간 연대 등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행사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최수호 연합뉴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특파원

1. 2014년 10월 12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고려인 연해주 이주 150주년' 기념 한민당 축제(We are the One in Ansan)에서 고려인들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2. 올해 3월 1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있는 신한촌 기념탑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3. 올해 3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 허바롭스카야 거리의 신한촌 기념탑 시설물을 설명하는 고려인 3세 이 지나이다(65) 씨
4.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있는 고려인문화센터 건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100년 만에 새 단장... 재외동포청, 50만 달러 전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인회관이 100년 만에 새로 단장했다. 주샌프란시스코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회관은 최근 2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11월에 마쳤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 100년 만이자, 1987년 한인회가 이 건물을 매입한 지 36년 만이다.

유대인 사원으로 폐쇄형 구조의 기존 건물은 현대식 디자인의 개방형으로 확 바뀌었고, 곳곳에 있던 벽을 없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기업과 단체의 네트워킹 행사나 결혼식을 위한 대강당이 마련됐고,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역사박물관도 들어섰다.

이번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총 360만 달러(47억5천만원)가 모금됐다. 김진덕·정경식재단과 재외동포청이 각각 10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기부했고, 한인들도 십시일반으로 부담했다. 삼성전자는 대형 스크린을 기증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연고로 한 미식축구팀 '49ers'도 5천 달러를 기부했다.



100년 만에 새로 단장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한인단체 구호품에 멕시코 허리케인 이재민들 “감사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피해로 신음하는 멕시코 아카풀코 주민들이 한인 단체의 구호품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월 5일(현지시간) 멕시코 한인 봉사단체인 '사랑의 손길'에 따르면, 멕시코 한인들의 기부로 모인 구호 물품이 전날 게레로주 아카풀코 지역 이재민에게 전달됐다.

10 들이 생수 2천100병을 비롯해 컵라면과 레깅스 등 재해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멕시코시티에서 4t 화물차 편으로 허리케인 '오티스' 피해 지역에 실어 날랐다. 기부 안내를 한 지 닷새도 되지 않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구호품이 담지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멕시코 주민들은 이 단체에서 함께 건넨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랑의 손길' 강덕수 회장은 “망연자실해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25일 새벽 멕시코 서부 해안가를 강타한 최고 등급(5등급) 허리케인 '오티스'로 이 나라 유명 휴양도시인 아카풀코와 그 주변 도시는 큰 피해를 봤다.

멕시코 정부에서 제공하는 허리케인 오티스 일일 대응 보고서의 인명 피해 규모가 매일 조금씩 바뀌는 가운데 11월 4일 기준 47명이 숨지고 5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구호품 전달하는 한인 단체 관계자들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 호주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발대식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이사장 김명찬)는 12월 9일 호주서 시드니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모금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스트라필드시 카렌 시장과 유선우 민주평통 상임위원, 방승일 재향군인회 호주지회장, 최지수 발대식 준비 위원장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명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기념관 기금 모금이 동포사회 전역으로 확산해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렌 시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되면 꼭 방문하겠다"고 성금 조성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즉석 모금을 통해 1천만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협의회는 지난 10월과 11월에 베트남 호찌민과 미국 워싱턴에서도 기념관 건립 모금 발대식을 열었다. 10억원의 성금 조성을



호주 시드니서 열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발대식 장면

목표로 아시아, 유럽, 중국, 중동 등으로 모금 발대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멕시코 · 쿠바서 미서훈 독립운동가 20명 발굴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 연구팀은 멕시코 · 쿠바 등지에서 광주 학생독립운동에 기여했지만, 서훈 추서가 안 된 20명을 발굴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김 교수 연구팀은 전남대 연구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멕시코와 쿠바에서 현지 조사를 벌였다.

1905년 멕시코 농장으로 노동 이민을 간 한인들은 1909년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지방회를 결성하고 독립자금을 모았다. 이들 중 300여명은 1921년 쿠바 사탕수수 농장으로 재이주해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를 결성하고 각종 독립운동 자금을 냈다.

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소식이 멕시코와 쿠바에까지 알려지자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지지대회와 특별후원금 모금 운동을 벌여 300여명이 300달러를 모금했다. 이런 공로로 멕시코에서 60여명, 쿠바에서 40여명이 한국 정부의 서훈에 추서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서훈이 전수된 독립운동가는 30여명에 불과했고, 서훈에 추서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도 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 등은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김수권 선생 등 20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멕시코와 쿠바에서 활동한 한인 1세대 독립운동가들

찾아냈다.

연구팀은 독립운동 공로가 인정돼 서훈이 추서됐지만 훈장 전달을 못 했던 독립운동가 20명도 발굴했다. 서훈에 추서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묘는 후손의 동의하에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로 안장이 가능하다.

백제의 발자취... 공주 무령왕릉 · 마곡사 · 공산성 세 곳 모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충남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 학문화기구)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세 곳이나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왕릉 중 유일하게 피장자의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무령왕릉, 한국의 7대 산지승원(山地僧院) 중 하나인 마곡사, 대표적 고대 성곽인 공산성이 바로 그곳이다.

1971년 우연히 발견돼 국내외를 깜짝 놀라게 했던 무령왕릉은 발굴된 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들은 백제의 웅망스러웠던 역사와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한 열쇠들이다.

백제의 숨결 되찾아준 무령왕릉

백제사는 그간 밝혀진 게 적어 수수께끼 같았다. 백제 무덤은 도굴이 쉬운 구조여서 새 무덤이 발견되더라도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기록도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대부분 유실됐다. 그런 백제사에 숨결을 불어 넣어 준 사건이 무령왕릉 발굴이다.

고대 무덤 배수로 공사 도중 발굴된 무령왕릉은 1천500여년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무령왕릉은 훼손되지 않아 능의 주인공과 축조 연대, 내부구조, 부장 유물이 온전하게 확인된 유일한 삼국시대 왕릉이다.

무령왕릉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줬다. 백제와 중국·일본과의 교류 사실도 확인됐다. 내부 벽체를 벽돌로

쌓아 만든 무령왕릉은 중국 묘제의 영향을 받았다. 왕과 왕비의 관은 습기에 강한 일본산 금송(金松)으로 만들어졌다.

무덤 주인의 신분이 적힌 묘비, 능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인 진묘수 등 무령왕릉에서만 발견된 특이 유물은 학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금제 관장식, 금제 귀걸이 등의 금속 공예품들은 우아하고 섬세한 백제의 창의성과 수준 높은 공예 기술, 백제인의 장인 정신을 엿보게 한다.

무령왕릉은 어둠에 갇혀 있던 백제문화의 정수를 눈부시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20세기 한국 고고학사의 가장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발굴 초기에 3천 점이 채 못됐던 유물 수는 50여 년이 지난 현재 5천 점 이상으로 늘었다. 연구는 현재도 진행형 중이며 연구가 진척될수록 백제 역사와 문화는 찬란한 빛을 더 발할 것이다.

백제의 중흥 이끈 무령왕

왕릉 발견과 발굴이 워낙 극적이다 보니 무덤의 주인인 무령왕(462~523)은 정작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는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지금의 서울)을 빼앗기고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도읍을 옮긴 후 4번째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40세에 동성왕의 뒤를 이었다. 즉위 6년에 대흥년이 들자 창고를 열어 구휼 정책을 폈다. 즉위 10년에는 제방을 수리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1



2



1. 공주 마곡사의 대광보전과 5층 석탑
2. 공주에 있는 공산성 입구의 모습
3. 공주시에 있는 무령왕릉과 왕릉원
4. 무령왕릉에서 출토돼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

귀농시켜 농업 기반을 다지고 국가 재정을 확립했다. 중국 남조에서 수입된 유학과 도교 사상을 일본에 전파했다.

무령왕의 대외 정책 중 가장 큰 특징은 고구려에 대한 공세였다. 한성을 함락당한 백제는 무령왕 대에 이르러 고구려를 다시 공격해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다. 그는 웅진 도읍 시기에 재위했던 5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고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룩했다. 무령왕의 아들 성왕 대의 부흥은 무령왕 대에 그 기초가 다져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춘마곡사(春麻谷寺) 추갑사(秋甲寺)

‘봄은 마곡사, 가을은 갑사’라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봄이 아름다운 마곡사는 100여 사찰과 암자를 관할하는, 충남 불교 대본산의 하나다. 백제 무왕 41년인 대웅보전은 현존하는 한국 전통 목조건축물 중에는 많지 않은 중층 건물이다. 목조 건물의 아름다운 건축미가 잘 표현돼 있다. 마곡사는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선암사, 대흥사와 함께 한국의 산사(山寺) 혹은 산지승원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마곡사 대광보전 앞에 있는 5층 석탑은 고려 말기에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세워졌다.

마곡사에도 가슴 적시는 이야기가 흐른다. 마곡사 내 가장 오래된 건물인 영산전은 조선 시대 세조 임금이 만세가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극찬한 곳이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매월당 김시습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다. 세조는 마곡사에 은둔한 매월당을 찾아왔으나 그는 자리를 피해 버린다. 세조는 ‘매월당이 나를 버리니 가마를 타고 갈 수 없다’며 타고 온 가마를 마곡사에 두고 갔다. 세조의 가마는 지금도 마곡사에

보관돼 있다.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인 백범 김구는 대한제국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한 후 수감됐다가 탈옥해 마곡사에 숨어 지냈다. 광복 후 마곡사를 다시 방문한 선생은 대광보전의 ‘각래관세간 유여몽중사’(却來觀世間 猶如夢中事: 돌아와 세상을 보니 마치 꿈속 일만 같구나)라는 주련(柱聯)을 보고 감회에 젖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백범당 앞에는 선생이 심은 향나무와 친필 휘호가 있다. 마곡사에는 또 다른 유명 인사의 휘호가 있다. 범종루 옆에 있는 동정각(動靜閣) 편액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 쓴 것이다.

비단같이 고운 금강을 굽어보는 공산성

공산성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후 지은 왕성이다. 북쪽으로 금강이 흐르며, 해발 110m인 공산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쌓은 천연의 요새다. 성벽 전체의 길이는 2천660m에 이른다. 백제 시대에는 흙으로 쌓은 토성과 돌로 쌓은 석성이 함께 있었으나 조선 시대에 석성으로 다시 쌓았다.

630년 백제 무왕이 사비(현재의 부여)의 궁궐을 수리할 때 5개월 동안 머물렀으며, 백제 멸망기에 의자왕이 일시적으로 거처했다. 조선시대 이괄의 난 때 인조가 피신했던 요충지이기도 하다.

백제의 추정 왕궁터, 석빙고, 4곳의 성문, 쌍수정 등 백제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유적이 남아 있다. 공산성 공복루는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운’ 금강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현재 공산성에서는 왕궁 추정지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천500년의 세월을 간직한 공산성은 또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기대된다. 창

‘2023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개최

재외동포청은 중국과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8박 9일 동안 ‘2023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를 개최했다.

서울과 지방(부산 등)에서 8박 9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중국, 러시아, 키르기스공화국, 카자흐스탄 4개국에서 9명의 언론인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조를 통해 ‘국내외 미디어 현황과 트렌드’, ‘아이템 발굴 노하우 및 기사 작성법’ 등 언론인으로서의 취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의를 들었고, 12월 11일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계열사인 연합뉴스TV 탐방을 통해 국내 언론사의 발전된 시스템도 경험했다. 또 부산과 울산의 문화, 산업 시설 등을 방문함으로써 모국의 발전상에 대한 취재 실습 기회를 가졌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 참가자들이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를 탐방한 뒤 사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 시혜 대상서 호혜적 관계로”... 고려대서 정책토론회

재외동포청 12월 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에서 재외동포가 과거 정부의 시혜 대상이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모국과 호혜적 성격의 동반성장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동포정책의 비전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외 재외동포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윤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과장은 기본 계획을 소개하면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일원화,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부처별 산재한 민원 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을 거론했다. 또 내년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원년으로



12월 8일 고려대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차 계획은 2028년까지 5년간이라고 밝혔다.

정책 주요 추진과제로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 강화 ▲차세대 동포 초청연수 및 장학사업 확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치·운영 ▲국격에 걸맞은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위난(危難)·소외 동포 보듬기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 차세대 인재 발굴 등을 꼽았다.

‘국내외 재외동포 정책과 정체성 함양’을 주제로 진행한 제1세션에는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임영연 재외한인학회 회장, 장태한 미국 UC리버사이드대 교수, 최미영 미국 캘리포니아 다스한국학교 교장, 최병천 월드코리안 편집이사 등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재외동포 거주국 지위 향상’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는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객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재외한인학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이병석 씨의 '아버지 도널드'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재미동포 이병석 씨의 ‘아버지 도널드’가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 작가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으로 33편을 선정해 11월 14일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문학적 감성과 향수 및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단편소설 부문 대상에는 중국동포 차준희 씨의 ‘노강(怒江)’, 수필 부문은 파나마 거주 김태진 씨의 ‘오늘도 맛있게’가 뽑혔다. 중고등부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은 주희(독일 거주)의 ‘다름을 낭독하다’, 초등부 글짓기는 손한빛(미국 거주)의 ‘할머니와 나의 한글 공부’가 차지했다. 한글학교 특별상은 미국 게인스빌한국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한국학교에 돌아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국에서 707편의 작품이 응모했고, 미국·카자흐스탄·아르헨티나 등 14개국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25년간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고, 수상자들이 문단에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글 문학 창작활동이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내국민의 이해 제고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추천 시



아버지 도널드

재미동포 이병석

Spring Street 구두 수선장이 도널드는 1951년 열 아홉에 나이에 가죽목(Leatherneck) 미 해병이 되고, 생전 처음 들어본 Korea 그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가 투입된 전투는 작전명 “펀치볼(Punch Bowl)”이다. 한밤중 전투에서 병커에 날아든 포탄에 파편이 그의 허벅지를 관통하며 거친 걸음걸이의 주인이 되었다. Spring Street 그의 가게는 삼삼오오 찾는 옛 전우들의 거친 언어들 있고, 망치와 샌딩머신이 연주를 하며 본드 냄새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곳이다.

우린 첫 만남에 친구가 되었고 난 그를 아버지 도널드라 불렀다. 그렇게 미 해병 전우들의 조카가 되었다.

미국 생활 초년생 스물 하나 나이에든 운전할 줄 몰랐다. 그런 나를 위해, 아버지 도널드가 운전연습 가져왔다. “미국에서 운전은 아버지에게 배워야 하는 거야” 하시며 그의 애마 트럭을 몰고 왔다. 우리가 향한 곳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드넓은 잡초들의 벌판이었다.

운전대를 나에게 주시며 말 하셨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달리고 싶은 데로 어디든 가라. 이 안에서 장애물은 없다. 넌 구름이고 바람이다. 여긴 허락되어진 네 공간이다.” 잠시 떨리던 손은 열쇠구멍을 찾았고 핸들을 붙잡고 있던 손에는 이미 땀이 고였다.

시동을 걸자 들려온 그의 목소리, “My Son! I am on your side, Go, Just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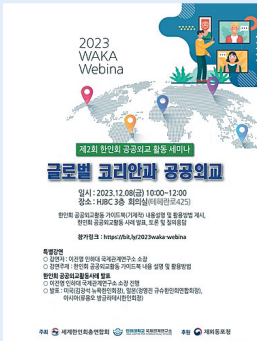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던 나의 발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액셀레이터를 조심스레 밟았다. 그의 오랜 친구 트럭이 움직인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벌판을 향하여 트럭이 간다.

긴장이 온 근육들을 점령해버린지 오래고 나의 시선은 앞만 보았다.

풀잎이, 바람이, 트럭 범퍼를 지나 윈실드를 넘어간다. 나를 점령한 긴장이 조금씩 내려갔다.

난 그렇게 운전을 시작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글로벌 코리아나 공공외교’ 세미나 개최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회장 심상만)는 12월 8일 서울 강남구 HJ비즈니스센터(HJBC)에서 '제2회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코리아나 공공외교'를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공공외교 활성화를 모색해 한인사회 위상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로,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해 진행된 세미나에는 이 행사를 후원한 재외동포청 관계자, 재외동포 분야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미국 다솜한국학교, 한인사 교재 '재미동포의 삶과 꿈' 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12월 9일 재미 한인 이주 역사를 인물 위주로 소개하는 교재인 '재미동포의 삶과 꿈'을 출간했다. 책은 재미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서재필·이승만을 비롯해 아시안 여성 최초 미 해군 장교였던 안창호의 딸 안수산, 뉴욕타임스에 소개됐던 유관순 열사, '쌀의 대왕'이라 불리는 부호로 월로우스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한 김중림, 천도복숭아 품종을 처음 개발한 김형순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1년간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한인사 인종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민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을 간추려서 교재로 만들었다.



미국 한국어교육재단, '아이 러브 김치' 행사 개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학교 교사들이 만든 비영리단체 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구은희)은 11월 17일 지역 소재 미션산호세고등학교에서 '아이 러브 김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힘 뉴엔 로키나 연방하원의원 보좌관, 정승덕 유엔피스코 부이사장, 라즈 살라완 프리몬트 시의원, 최경수 한국어교육재단 고문, 에이미 페레즈 미션산호세고교 교장 등과 한인 및 현 지인 8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아이 러브 김치 송'을 부른 뒤 재단에서 제공한 배추와 양념 등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고 맛봤다. 구은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해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반크 '김치의 날' 맞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홍보사이트 구축

사외비외교사절단 반크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홍보사이트(kimchiday.prkorea.com)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로 특정 음식이 기념일의 소재로 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1) 하나(1)가 모여 면역 증강, 항산화, 항비만, 항암 등 22가지 이상이 효능을 만들어 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반영해 11월 2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세계 4개국 14개 도시가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해 선포했다.



외국 교과서에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올해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7천만명이 넘어서었다. 그런데 '한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세계인들은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는 알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접수된 관련 전언을 소개한다. 미국의 한 동포는 "초·중·고교 12년을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 배운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미국이 참전했던 한국전쟁 이야기가 전부였어요"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한 한류 팬은 "프랑스 학교 수업에서는 한국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째는 일본의 한국 침탈이고, 둘째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을 다른 나라로부터 희생당한 국가로 표현하는 유럽의 교과서들은 한국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학부모라고 밝힌 한 재외동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교과서에는 한국이 아직도 가난한 나라로만 소개돼 있다고 합니다"라며 우려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 각국 교과서에 한국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까? 과거 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로 활동하면서 현지 동포들과 함께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을 새롭게 소개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성공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네덜란드 동포들과 함께 현지 교과서 출판사에 연락해 서구 선진국들이 300여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불과 반세기 만에 달성한 한국의 사례가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도전, 희망을 전해주고 지구촌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줄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한국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의지와 태도, 노력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잘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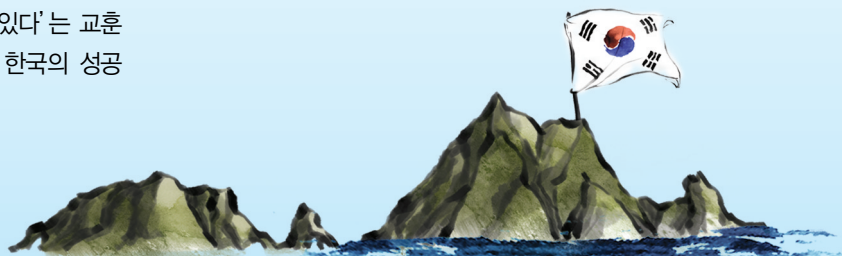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대표

이야기가 한국만이 아닌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며, 네덜란드 청소년들을 세계적 지도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네덜란드에서 최대 시장 점유율을 가진 두 종류의 수험서와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만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이 자랑스럽게 소개되자 현지 동포들도 한 인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면 반겼다. 네덜란드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은 물론이다. 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부였던 한류가 교과서에 등재된 한국의 경제발전 이야기로까지 확대돼 한국의 매력적 이미지가 네덜란드인들에게 새롭게 각인된 것이다.

반크는 지난 9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을 바로 알린 사례를 지렛대 삼아 전 세계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외동포들과 함께 나라별 교과서 출판사들을 설득해 한국의 발전상을 교과서에 실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국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을 반영되는 일은 무엇보다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현지 교과서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한국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 교사들의 호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과 협력해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수업 교안을 만들어 전 세계 교사들이 교실에서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각국 현지 문화와 상황에 맞춰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구촌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새길 이 프로젝트에 750만 재외동포들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창**



2024년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재외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외동포 단체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검토 요건

- 재외동포 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비영리 목적의 한인회관 등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의 사업
- 모금 등 재외동포 사회의 자조적 노력으로 총사업소액의 50% 이상이 확보된 사업
- 개인 명의, 수익사업, 분규단체 추진 사업, 채무상환, 자체 재원 50% 미만, 관할공관 미경유 사업 등 지원 불가

나. 지원절차 및 일정

- 재외동포단체는 2023년 12월 13일 ~ 2024년 1월 17일 간 지원신청서(지정 양식) 및 모든 증빙서류를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과 관할공관에 제출
- 재외동포청은 2024년 3월 내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통보(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 재외동포청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관할공관에 지원금을 송금하고, 관할공관은 사업 완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재외동포 단체에 지원금 전달

- 재외동포 단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공관을 경유하여 재외동포청에 결과보고서 제출
- 서류 누락, 사업추진 지연, 사업 변경, 지원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 문의처

-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기술 지원): 02-3415-0144(한국시간 평일 09:00~18:00), pms01@okocc.or.kr
- 재외동포청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 담당자(사업 안내): +82-32-585-3203, shmoon22@korea.kr
- 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의 관련 사이트 참조



재외동포청장 동정

- 11월 28일: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 참석
- 12월 1일: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주재
- 12월 7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화상회의 참여
- 12월 8일: 재외동포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개토론회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전 세계
재외동포의 대변자



@overseas_koreans_agency



facebook.com/oka202365



@OKAKOREA